풀반환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구급차

어 또 다른 역사를 향해 달린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3·1절 전국마라 을 여는 질주, 도심을 달리는 명품 풀코스 게는 20만원, 4·5위에게는 10만원의 상금 는 전국 마라토너들의 눈길을 광주로 향하 게 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이번 대회는 메달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간식과 음 풀코스와 하프코스 두 부문으로 나눠 치러 지면서 수준 높은 질주가 예고된다. 민주· 인권의 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5. 18민주화 운동의 심장부였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옛 전남도청)을 출발선으로 한 이번 대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을 기념하는 해로 더욱 의미가 있다.

도심을 마라톤 열기로 달굴 풀코스 스타 트 총성은 오전 8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에 울려퍼진다.

3·1 마라톤 풀코스 참가자들은 국립아 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호남의 젖줄인 영 산강길을 따라 승촌보로 걸음을 이어간다. 나주 노안을 돈 참가자들은 상무시민공원 으로 달려가 42.195km의 도전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풀코스에 이어 오전 8시35분,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서서 새봄을 깨운 다. 하프코스 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서창교를 돌아 상무시민공원으로 들어오는 코스다.

건강한 질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는 끝났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대회 당일 행사 장 곳곳에 구급차가 배치되고, 주행코스를 따라 생수와 스포츠 음료 및 간식 등이 제 공된다. 페이스 메이커 '광화문 마라톤 모 임'과 레이스 패트롤 요원인 '노란 자전거' 는 3·1 마라톤 도우미로 호흡을 맞춘다.

기록 측정용 칩을 사용, 부문별 1~45위 까지 시상이 이뤄진다. 대회 현장에서는 1~3위까지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가장 먼저 42.195km의 질주를 끝내 풀코 스 남·여 우승자에게는 상장·트로피와 함 께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2위는 40만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하프코스 우승자에게는 상장·트로피와 톤대회가 51번째 봄을 기다리고 있다. 봄 함께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2·3위에 이 각각 주어진다.

> 결승선에 들어온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료도 준비됐다.

> 대한체육회(대한육상경기연맹, 대한트 라이애슬론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등)에 등록된 사람은 시상에서 제외된다.

> 20인 이상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 단 체상 시상도 진행된다. 참가자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시상이 이뤄지며 풀코스 2점, 하프코스 1점을 배정, 합산해 순위를 정하 게 된다.

> 1위 팀 상금은 50만원이며, 2위 40만원, 3위 30만원, 4위 20만원, 5~10위 10만원 의 상금이 준비됐다. 또 단체 참가팀을 위 해 참가자 및 동반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텐트가 설치된다.

> 화합과 우정의 즐거운 질주를 기념한 원 앙부부상, 포토제닉상, 행운상 등 특별상 도 마련됐다. 행운상은 3·1 마라톤의 51번 째 질주를 기념해 전체 참가자 중 사전 추 첨을 통해 51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민주·인 권 도시의 도심을 깨울 새봄의 질주, 반세 기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전국 마라토너 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1절 전국 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kjmedia.co. 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일보와 아시아문 화가 주최하며 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육 상경기연맹·마라톤세상이 공동 주관한 다. 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 훈청이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